



# 허은회 “52세 우승의 힘? 팬과 체력관리조”

## 경륜 최고령 우승 허은회

1994년 경륜 개장과 함께한 1기 선수 승률 28%, 연대율 42%, 삼연대율 61% “경쟁력 있을 때까지 선수생활 하겠다”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 설영석(30세, 19기, B1)이 선행에 나선다. 올시즌 선행으로 1차 2회, 2차 5회, 3차 2회의 성과를 올려 자신 있어 보인다. 팬 앞자리를 차지한 설영석 뒤에 한 선수가 그림자처럼 붙어있다. 4코너를 돌아 직선코스다. 마지막 스피드. 혼신의 힘을 짜내야 한다. 이젠 결승선까지 불과 몇 미터 뿐이다. 선수들의 허벅지 힘줄이 더욱 선명해 진다. 팽방울이 허공을 가르다. 페달을 돌리는 발놀림도 절정을 향한다. 이 순간이었다. 그림자 선수의 막판 추입. 성공이다. 관람객들의 환호와 탄성이 연이어 터져 나온다. 그리고 허은회(52세, 1기, B2)가 환하게 웃는다.

허은회가 경륜 최고령 우승 기록을 다시 쓰는 순간이다. 지난 9일 광명 경륜 26회차 3경주였다. 그는 1965년 1월생으로 현재 52세 최고령 경륜 선수다. 경륜에서는 30세 전후가 기량이 절정인 시기다. 정

준진, 박용범, 황인혁, 류재열, 전영규, 유태복, 신은섭 등 현재 경륜을 이끌고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30세 전후. 2017년 상반기 기준 성적 상위 50위내에 30세 선수가 9명, 32세 7명, 31세 6명이라는 사실은 허은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20여년을 경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허은회. 그는 1기 선수로 1994년 경륜 태동기부터 함께 한 경륜 역사의 산증인이다.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로는 1981년부터 13년간 활약했다. 전국체전,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리나라 사이클 발전에도 일조했다. 1994년 경륜이 개장했을 때 허은회는 29세였다. 다소 늦은 나이였지만 프로 경륜에 대한 그의 도전을 막을 순 없었다.

허은회는 기량이 만개한 나이에 경륜 선수로 데뷔했음에도 24년을 철저한 자기관리로 젊은 선수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허은회 선수의 강점은 아마추어 입상종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 트랙, 중·장거리, 스피리트 등 다양한 종목을 소화하면서 길러온 지구력과 순발력이다.

시련도 있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승률 0%였고, 2016년에는 1차 1회, 2차 2회, 3차 10회를 기록하며, 승률 2%, 연대율 5%, 삼연대율 21%에 불과했다.

올 시즌은 반전의 해였다. 승률은 지난 광명 26회차 기준 28%에 달한다. 연대율 42%, 삼연대율

61%로 경륜 팬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1차 10회, 2차 5회, 3차 7회도 대단한 성과다. 젊은 선수들과 경쟁에 나서며 승수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경기에 출전하는 일수 역시 연간 60일이 넘는 등 체력적인 문제도 아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허은회는 “경륜팬들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젊은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력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현재 경륜 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총 539명이다. 연령대별로 경륜선수 분포를 보면 20대가 59명, 30대 331명, 40대 146명, 50대 3명이다. 40대에 접어들면 선수들 숫자가 급감한다. 신체적인 능력이 중요한 경륜 선수의 특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다. 특히 50대부터는 선수활동 자체가 힘든 시기로 선수 수를 손꼽을 정도다.

그러나 허은회의 선수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행형이다.

허은회는 “후배 선수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은퇴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 체력관리를 철저히 해 다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선수생활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허은회 선수에게 52세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허은회는 9일 광명 경륜 26회차 3경주에서 우승하며, 경륜 최고령(52세) 우승 기록을 새로 썼다. 30세가 기량의 정점인 경륜에서 그는 철저한 자기 관리로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륜경정사업본부

## ‘상반기 17승’ 2기 김효년·3기 박정아·7기 심상철 다승왕 경쟁, 기수 자존심 걸다

### 하반기 빛낼 기수별 경쟁선수

치열한 순위 경쟁이다. 미사리 경쟁장은 선수들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량으로 여름 무더위보다 뜨겁다. 2017년 경정은 상반기 마감과 함께 하반기 등급변화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다. A 1등급으로 승급한 14기 신인 박원규(24세)의 괄목할만한 활약 등이 돋보인다. 상반기 결산을 바탕으로 하반기를 이끌어갈 각 기수별 대표 선수들을 알아본다.



김효년 박정아 심상철

### ●1기~5기 선수

1기 선수 중에는 이은석(46세)이 오랜 공백을 깨고 과감한 스타트와 선회력으로 상반기 10승을 기록했다. 김효년(43세)은 2기 선수 중에서 단연 눈에 띈다. 상반기 17승으로 박정아(3기), 심상철(7기)과 다승왕 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민천, 김정규, 김종민도 두 자리 승수를 거두고 있다. 3기에서 돋보이는 선수는 박정아(38세)다. 생애 첫 대상경주(2017 스포츠월드배) 우승과 다승왕 경쟁을 펼치는 있다. A 1 등급에 성공한 박철희와 15승으로 다승 4위

에 올라있는 이지수가 여전사의 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민영건(41세)은 15승으로 4기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쌓았다. 10승을 기록한 지현욱은 데뷔 후 한 시즌 첫 두 자리 승수를 기록했다. 어선규는 최근 만족스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만큼 명예회복을 노린다. 5기 선수 중에는 여현창(38세)이 8승, 이승일이 6승으로 선전하고 있다.

### ●6기~10기 선수

6기 선수 중에는 슬럼프를 벗어난 김동민(39세)이 11승이다. 손제민(7승), 손지영(8승),

안지민(9승)도 상승세가 기대된다. 2년 연속 다승왕에 도전하는 심상철(35세)은 17승을 달성하며 7기 선수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장수영(9승)도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반기를 기대하게 한다. 8기는 김민길(10승), 정주현(9승), 한종석(9승)이 주목받고 있다.

현 기수 중 가장 적은 인원(3명)을 보유한 9기 선수는 전체 기수 중 약재로 평가되고 있다. 신현경(37세), 김지훈(31세)이 나란히 5승을 기록했다. 10기 선수 중에는 김태규(33세)가 9승으로 한 시즌 두 자리 승수에 도전하고 있고, 반혜진(6승)의 도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 ●11기 이상 선수

김용선(32세)이 13승으로 기수를 대표하고 있는 11기는 김현덕(9승), 정훈민(8승)의 상승세가 기대를 모은다. 데뷔 4년차 12기는 세 번의 대상 결승전에 진출해 준우승 두 번, 3위 한 번을 기록한 유석현(31세, 12승)이 꼽힌다. 한성근도 8승을 올렸다.

13기 선수 중에는 6월 베스트플레이어상을 수상한 김민준(29세, 14승)이 노련한 경주운영 능력으로 하반기에도 좋은 성적을 이어갈 것으로 평가받는다. 올 시즌 데뷔한 14기 신인 선수 중에는 단연 박원규가 눈에 띈다. 박원규는 현재 11승으로 7기 심상철 이후 신인 선수로는 9년 만에 첫 해 두 자리 승수를 기록했다. 정용운 기자

## 물총축제 ‘살사대첩’, 더워 날릴 사이다네~

광명스피돔 22~23일 ‘쿨 썸머 페스티벌’ 키즈 워터풀·무료 워터파크 등 재미 풍성



“이제 물총축제, 워터 에어바운스, 야외 영화 상영... 무더위를 날려버릴 축제 오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7월 22~23일 양일간 광명 스피돔 야외광장에서 ‘스피돔 쿨 썸머 페스티벌’을 연다.

물총축제 ‘살사대첩’은 이번 페스티벌의 메인 이벤트. 22, 23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스피돔 야외 중앙광장에서 열린다. 물 대신 끈적이지 않는 사이다네를 이용한 물총축제다. 참가자들은 동아오츠카에서 협찬한 사이다네를 마시면서 물총축제를 즐길 수 있다. 참가 제한은 없다. 참가 희망자는 물놀이와 맞는 복장과 물안경, 물총 등을 준비해 축제 시간에 맞춰 행사장에 도착하면 된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2개의 대형 에어바운스에서 장애물 레이스대회와 키즈 워터풀이 운영된다. 장애물 레이스대회는 물을 이용한 대형 장애물 에어바운스를 2명씩 출발해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오면 경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페스티벌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 정각에 시작해 30분씩 운영한다. 현장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키즈 워터풀은 미끄럼틀이 있는 가로 18m, 세로 10m 어린이 수영장이다. 높이 4.5m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어 물놀이와 미끄럼틀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스피돔 썸머 무비나잇’은 경륜경정사업본부와 가구 전문기업 이케아(IKEA)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외장식음식물 전시와 페이스페인팅, 부채만들기, 타투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야외영화는 오후 8시부터 스피돔 페달광장에서 상영된다. 상영영화는 12세 이상 관람 영화인 라라랜드(LALALAND), 영화상영 당일 비가 올 경우에는 한 주 순연돼 7월29일에 상영된다. 관람인원은 500명으로 선착순 입장이다.

지난 8일에 개장한 스피돔 워터파크, 놀이마당, 숲속 도서관도 ‘스피돔 쿨 썸머 페스티벌’ 기간에 계속 운영된다. 정용운 기자

## 스포츠도토

### “KIA가 넥센 이긴다” 50%...넥센승 32%

#### 야구도토 스페셜 62회차 중간집계

(5.24%)를 차지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의 수탁사업자(㈜케이토토(대표 손준철))는 19일 열리는 2017시즌 한국프로야구(KBO)리그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도토 스페셜 62회차 투표율을 중간집계한 결과, 3경기 넥센-KIA전에서 50.41%가 KIA의 우세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넥센의 승리 예상은 31.99%에 그쳤다. 나머지 17.57%는 양팀의 같은 점수대를 전망했다. 최종 점수대는 넥센(4~5점)-KIA(8~9점) 항목이 1순위로

1경기 LG-kt전에서는 50.41%가 홈팀 LG의 승리를 예상했다. 35.17%는 원정팀 kt의 승리에 투표했다. 14.39%는 두 팀의 같은 점수대를 선택했다. 최종 점수대에서는 LG가 6~7점, kt가 2~3점을 기록할 것(7.75%)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 2경기 SK-두산전에서는 44.08%가 SK의 승리를 내다봤다. 두산의 승리는 40.14%, 같은 점수대는 15.79%로 나타났다. 최종 점수대로는 SK가 4~5점, 두산이 2~3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1순위(5.52%)로 집계됐다.

#### 야구도토 스페셜 62회차 투표를 중간집계

(18일 오전 9시 현재)

경기번호	1경기	2경기	3경기
출-원정	LG VS kt	SK VS 두산	넥센 VS KIA
경기일시	7.19(수) 18:30	7.19(수) 18:30	7.19(수) 18:30
순위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1	(6~7)-(2~3)	7.75%	(4~5)-(2~3)
2	(6~7)-(4~5)	5.03%	(2~3)-(4~5)
3	(8~9)-(2~3)	4.56%	(2~3)-(6~7)
홈팀 승	50.41%	44.08%	31.99%
같은 점수대	14.39%	15.79%	17.57%
홈팀 패	35.17%	40.14%	50.41%

게임방식 : 3경기 6게임(또는2경기 4게임) 최종 스코어 맞이기 \* 표기방식 : 0~1점, 2~3점, 4~5점, 6~7점, 8~9점, 10+(10점 이상) \* 발매일자 : 2017. 7. 19(수) 18시 20분

### “서울, 인천쯤이야” 64%...22%는 무승부

#### 축구도토 스페셜 32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 수탁사업자(㈜케이토토(www.ktoto.co.kr))가 19일 펼쳐지는 강원FC-울산현대(1경기)전과 인천유나이티드-FC서울(2경기), 수원삼성-전남드래곤즈(3경기)전 등 K리그클래식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도토 스페셜 32회차 투표를 중간집계 했다.

이 결과 축구팬의 64.48%가 인천-서울(3경기)전에서 서울의 승리를 예상했다. 홈팀 인천의 승리예상은 13.55%에 머물렀고, 21.97%는 무승부를 예측했다. 최종 스코어는 1-2 서울 승리(11.95%) 순으로 집계됐다. 1경기 강원-울산전은 홈팀 강원(31.33%)과 원정팀 울산(37.11%)의 투표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

최종 스코어는 1-2 울산 승리가 1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위 수원과 8위 전남이 맞붙는 3경기에서는 59.81%가 수원의 우세에 손을 들어줬다. 최종 스코어 2-1 수원 승리예측이 16.40%로 가장 많은 투표율을 차지했다.

#### 축구도토 스페셜 32회차 투표를 중간집계

경기번호	1경기	2경기	3경기
출-원정	강원FC VS 울산현대	인천UTD VS FC서울	수원삼성 VS 전남드래곤즈
경기일시	7.19(수) 19:30	7.19(수) 19:30	7.19(수) 20:00
순위	스코어	투표율	스코어
1	1-2	16.31%	1-2
2	1-1	15.22%	1-1
3	2-1	13.19%	0-2
홈팀 승	31.33%	13.55%	59.81%
무승부	31.56%	21.97%	24.49%
홈팀 패	37.11%	64.48%	15.73%

\* 게임방식 : 2경기 4게임 및 3경기 6게임 최종 스코어 맞이기 \* 표기방식 : 0, 1, 2, 3, 4, 5+(5점 이상) \* 발매일자 : 2017. 7. 19(수) 19시 20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의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

### 베트맨 7월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 18일 현재 1만3000여건 조회 열기

스포츠도토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이 진행하는 7월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 ‘건강하고 즐거운 토토생활, 건전화 프로그램이 지켜드립니다!’가 18일 현재 조회수 1만3000건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이고 있다. 토토편들의 건강함 참여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베트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전화 프로그램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그리고 ‘건전 구매 캠페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셀프 진단평가’는 회원 스스로 자신의 게임성향을 진단해 게임 몰입도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셀프 구매계획’은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이 스스로 한 주 동안 구매금액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건전 구매 캠페인’은 올바른 스포츠도토 구매에 대해 알아보고, 건전 구매 가이드라인 지키기를 통해 건전한 토토 구매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가운데 1개 이상에 참여하면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응모자는 추첨을 통해 타상품 선봉기(10명)와 모기퇴치기(10명)를 준다.